

‘미디어아트’와 ‘치유 문화’의 만남

고창 선운미디어갤러리 개관 7가지 보물과 관광자원 주제 미디어 체험·문화 이벤트 등 진행



심덕섭 고창군수가 선운미디어갤러리 내부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초입에 고창을 알리는 다양한 사진과 미디어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가 개관했다.

고창군도시문화센터는 지난 2일 선운산 관광단지 내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고창문화관광재단 이사, 문화도시추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운미디어 갤러리’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선운미디어갤러리는 세계유산도시 고창 사진전 시관을 리모델링해 치유문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고창이 보유하고 있는 7가지 보물과 관광자원을 주제로 뽀제비갈매기의 이야기, 실감형 미디어아트-고창의 사계가 선보여진다.

갤러리 외관은 고창 홍보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아트 작품이 상영되고, 외벽에는 문수사와 뽀제비갈매기를 형상화한 벽화가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선운미디어갤러리를 활용

해 정기적인 미디어 체험 행사, 문화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치유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고창만이 선사할 수 있는 자연과 예술의 하모니를 체험하도록 지원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선운미디어갤러리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

영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비롯해 고창의 자랑스러운 치유 자원을 미디어아트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운미디어 갤러리가 많은 관광객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청명·한식 기간 ‘화장’ 업무 확대

서남권추모공원 6일까지 하루 최대 기존 8건→15건

정읍시가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

정읍시는 4일부터 6일까지 하루 최대 화장가능 건수를 기존 8건에서 15건으로 늘려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은 조상의 묘를 손보거나 이장하는 전통의 절기로 개장 유골의 화장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

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일시적인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화장 예약을 해야 한다. 동 지역은 시청 노인장애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명과 한식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원을 찾는 만



서남권추모공원.

큼 화장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점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시민 대상 ‘드론 조정’ 무료 수업

‘드론스포츠 교육’ 1기 18일까지 모집...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남원시가 ‘국내 드론레이싱’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시민 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드론레이싱 전문기업인 디에프엘 코퍼레이션(DFL Corporation)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맡아 진행한다.

직접 드론을 조정하는 실습 중심으로 조종의 기본 원리와 경기 규칙 등 이론 수업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는 드론기체 조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종 자격증, 교육 수료증, 남원 국제드론제전 참가 기회, 우수 교육생 상장 등의 특전을 얻을 수 있다.

일정은 기수별 4주 과정이며 평일반은 오전·오후·야간반으로 주 2회 운영되고 월·수반과 화·목반과 함께 주말반은 주1회 토요일 중일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의 인원은 10명 이하다.

1기는 오는 18일까지 모집해 21일부터 5월 15

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상시 모집을 통해 10월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펼쳐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드론 스포츠가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드론 스포츠의 매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춘향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다음달 3일~6일 광한루원 등 행사장 연결 4개 노선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를 즐기는 관광객을 위해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4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별도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은 광한루원, 유채꽃밭 등 주요 행사장을 연결하며 남원역, 스포츠타운, 임시주차장 등 교통 거점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까지 모두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노선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출발 ‘쌍교동상당’ 하차, 2노선 남원역 출발 승사교 하차, 3노선 춘향문화예술회관 인근 연지매점 출발 승사교 하차, 4노선 디라우 아파트 앞 임시주차장 출발 승사교 하차 등이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순환되며 전 구간 무료 이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축제 당시 지적됐던 점심·저녁 식사 시간대 셔틀버스 미운행 문제를 개선해 전 시간대 끊임없는 운행으로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교통 상황을 고려해 셔틀버스를 마련했다”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가급적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셔틀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행사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갯벌 이달의 새 ‘뽀제비갈매기’

고창군이 4월의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 ‘뽀제비갈매기’를 선정하고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 철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다. 그중에서도 뽀제비갈매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R)으로 지정된 희귀한 철새로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분류돼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개체만 관찰될 정도로 개체수가 적은 뽀제비갈매기는 2016년부터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고창갯벌을 찾아와 휴식하며 먹이활동을 한다.

머리 위 완관 모양 장식깃과 비행 시 제비처럼 갈라지는 꼬리날개가 특징적인 뽀제비갈매기는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조’로 지정돼 고창군의 대표적인 상징 조류로 자리 잡았다.

고창군은 멸종위기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주요 서식지인 구시포해수욕장 일원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달의 새 홍보를 통해 고창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멸종위기 철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경찰, 초교서 ‘안전한 길 건너기’ 교육



정읍경찰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일초 전교생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횡단 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신호의 의미,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방법, 교통안전 동영상 시청을 교육내용으로 실시했다.

<사진>

특히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오인해 보행 중 사고를 당한 사례를 들어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행 중 교통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들은 보행 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